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윤영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저자들은 1986년 1월부터 1995년 12월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병리조직학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54례의 선양낭성암종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자가 27례, 여자가 27례로 남녀비는 1:1이었고 평균연령은 47.7세였다. 발생부위별로는 주타액선에 19례(35.2%), 소타액선에 35례(64.8%)로 소타액선에 많았다. 주타액선에서는 악하선에 13례, 이하선에 4례, 설하선에 2례였고, 소타액선에서는 상악동, 접형동 및 비강 내에 16례, 구강에 12례, 구개인두에 4례, 기관, 귀, 비인강에 각가 1례의 순이었다. 임상적 병기는 1기가 11례(20.4%), 2기가 18례(33.3%), 3기가 10례(18.5%), 4기가 15례(27.8%)였다. 초치료는 수술만 시행한 경우가 12례, 수술과 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27례, 방사선치료만 시행한 경우가 12례였고, 진단시 원격전이가 있었던 4례 중 3례에서 항암화학요법이 시행되었다. 치료 후 재발 양상은 24례에서 발견되었고, 국소재발이 11례(45.8%), 원격전이가 7례(29.2%), 국소재발과 원격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6례(25.0%)였다. 17례의 원격전이 중에서 폐전이가 10례(58.8%)로 가장 많았고 골전이가 4례, 폐전이와 골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가 1례였으며, 폐전이와 간전이가 같이 있었던 경우와 뇌전이도 각각 1례였다.

6

이하선 종양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박석진 · 심운상 · 오경균 · 이용식 · 김승태

이하선종양은 전 타액선종양의 75~80%를 차지하는 종양으로 다양한 조직병리학적 소견, 안면 신경과의 연관성 및 타 종양과의 생물학적 특성이 틀린 점 등이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저자들은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에서 조직병리학적으로 이하선 종양으로 확진되어 치료한 119

례에 대하여 임상적 양상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총 119례중 양성종양은 71례, 악성종양은 48례로 양성종양이 59.7%를 점유했으며, 환자의 연령분포는 12세부터 75세까지였다(평균 연령 45.2세). 남녀비는 1:1.1 이었으나, 각 성별에서 악성종양의 빈도는 남자에서 51.0%, 여자에서 30.6%로 남자에서 악성종양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직병리학적 분류를 보면, 양성종양에서는 양성혼합종 60례(84.5%), Warthin 종양 4례(5.6%)순이었으며, 악성종양에서는 점액표피양암종 17례(35.4%), 선양낭포암종 9례(18.8%), 악성혼합종 7례(14.6%), 선암종 6례(12.5%)의 순이었다. 치료는 수술적 절제를 원칙으로 종양의 위치에 따라 표재엽절제술, 전엽절제술 및 경부청소술 등을 시행하였으며, 악성종양의 경우 21례에서 술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하였다.

7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

원자력병원 이비인후 - 두경부외과  
이용식 · 박윤영

보통의 동맥류성 골낭은, 골지주나 골성조직 그리고 골파괴성 거대세포를 함유한 결합조직에 의해 구별되며, 혈액이 차 있는 다양한 크기의 공간들로 이루어진 확장성 골용해성 병변이다. 이에 비해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섬유모세포성, 골파괴성, 골형성성, 동맥류성, 섬유점액성 요소를 가진 색다른 고형성 골병변이다. 고형의 동맥류성 골낭은 종양 유사 병변이며 손상에 대한 특수한 골작용으로 생각된다. 소파술로 치료가 되며 예후는 좋은 편이다.

저자들은 두개저에 발생한 동맥류성 골낭 1례를 치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9세 여자환자로 4년 전부터 서서히 발생한 좌측 안면신경마비, 난청 및 복시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이학적 검사상 제 6, 7, 11, 12번 뇌신경의 마비소견이 있었으며 전산화 단층 촬영상 소뇌 교각에서 제 1경추까지 내려가는 종괴소견을 보였다. 이에 두개저에 발생한 신경원성 종양을 의심하여 경추두골미로상부접근법에 의한 수술을 시행하였다. 조직검사상